

##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의 생애와 부(賦)에 대한 고찰

양 승 천\*

### 차 례

1. 머리말
2. 양응정의 생애
3. 양응정의 부에 대한 약론
  - 3.1. 사대부의 덕행 수양 - 사(射)
  - 3.2. 왕위 계승의 정당성 - 태백묘(泰伯廟)
  - 3.3. 적재적소의 인재등용 - 대장불기재(大匠不棄材)
4. 맺음말

### | 국문초록 |

양응정은 조선 중기에 활동한 관료이자 문인으로, 호남지방에서 활발한 문학 활동을 전개한 중심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1552년 식년문과에서 을과로 급제를 하였고, 1556년 문과 증시에서 내수외양책에 의한 <남북제승대책>으로 장원을 하였다. 또한 대사성을 두 번이나 지냈고, 문장에도 능하였다.

양응정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16세기 중엽 명종과 선조 때이다. 목릉성세로 일컬어지는 이 시기는 시와 문장이 찬란한 꽃을 피웠다. 이 시기를 예비하고 주도했던 인물은 주로 호남 출신이거나, 호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문인이었다. 이들 중에는 목릉성세 터전의 기초를 닦았던 인물도 있고, 그 시대의 주동적인 처지가 되어 이끌었던 인물도 있다. 양응정의 경우는 목릉성세 터전의 기초를 닦았던 인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양응정은 세 편의 부(賦) 작품을 남겼다. <사(射)>, <태백묘(泰伯廟)>, <대장불기재(大匠不棄材)>가 그것이다. <사>는 『예기』 <사의>를 참고하여 지은 것이고, <태백묘>는 『논어』 <태백>을, <대장불기재>는 『맹자』 <진심장 상>을 참고해 지은 것이다. 문학 작품은 작가정신과 의식의 소산이므로, 필연적으로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세 편의 부는 그가 활동했던 16세기 중엽의 명종과 선조 시대를 배경으로, 그의 우국충정이 아늑하게 서려 있다.

\* 전남대학교

〈사〉에서는 시대적 혼란기에 사대부와 선비들의 정신을 진작시킬 중요한 방법으로 활쓰기를 권장하여, 그들이 문무를 겸한 민방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태백묘〉에서는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한 조정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인용해, 선조의 왕위 계승 문제를 합리화하고 있다. 〈대장불기재〉에서는 임금이 인재를 발굴해 쓰려 할 때는, 흑시라도 인재를 버리는 일이 없이 잘 파악해 적재적소에 골고루 써야 한다는 것이다.

양응정은 많은 부 작품을 남기지 않고, 세 편의 작품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부는 신라 최치원의 〈영효〉 이후로,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내려오는 우리나라 부의 문학사에서 한 단락을 차지하는데 얼마간의 도움이 되었다고 하겠다.

**핵심어** : 양응정, 부, 〈사〉, 〈태백묘〉, 〈대장불기재〉, 우국충정

## 1. 머리말

송천 양응정(松川 梁應鼎, 1519-1581, 자 公燮, 호 松川, 본관 濟州)은 조선 중기에 활동한 관료이자 문인으로, 호남지방에서 활발한 문학활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그는 1552년 식년문과에서 을과로 급제를 했고, 1556년 증시문과에서 <남북제승대책(南北制勝對策)>으로 장원을 했다. 대사성을 두 번이나 지냈고, 문장에도 능해 목릉성세를 이루었던 시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한국한시문학의 금자탑을 쌓은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 옥봉 백광훈(玉峯 白光勳, 1537-1582), 고죽 최경창(孤竹 崔慶昌, 1539-1583)과 같은 뛰어난 제자를 길렀다.

이수광(李晬光, 1563-1628)은 그의 저서 『지봉유설』에서 양응정을 박상, 임억령, 김인후, 임형수, 박순, 고경명, 백광훈, 최경창, 임제 등과 함께 호남지방에서 출현한 걸출한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뽑았다. 허균(許筠, 1569-1618)은 그의 문집 『성소부부고』에서 양응정을 박상, 양팽손, 송순, 박우, 최산두, 박순, 류희춘, 류성춘, 다세창, 임형수, 김인후, 임억령, 이항, 기대승, 오겸 등과 함께 중종조 이후 세대에서 학문이나 문장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하였다.

양응정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1994년 처음으로 백은영의 「송천 양응정과 그의 시세계」에서 양응정의 생애와 학문적 성향, 시의 표현 특성, 시문학사

적 위치 등 문학적 측면을 연구하였다.<sup>1)</sup> 이후 양응정 시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5년 권순열의 「송천 양응정의 시문학 연구」<sup>2)</sup>로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한국고시기문학회에서 발간한 학회지 『고시가연구』 6집을 「송천 양응정의 시문학연구」 특집호로 마련하여 1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여기에서는 양응정의 시와 산문까지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의 시문학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sup>3)</sup> 지금까지 양응정에 대한 연구는 총 23편의 논문이 있다. 그 중 3편은 양응정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어 실제로 양응정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연구논문은 20편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부(賦)와 관련된 연구는 김주한의 「송천 양응정의 부에 대하여」<sup>4)</sup>가 유일하다.

김주한은 부의 실상과 특색에 대해, 유협의 『문심조룡(文心雕龍)』, 서사증의 『문체명변(文體明辯)』 등을 참고해, 부의 출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서사증의 『문체명변』을 참고해 부를 시기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진한(秦漢) 시대의 고부(古賦), 육조 시대의 배부(俳賦), 수당 시대의 율부(律賦)를 거쳐 송대에 오면 산문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부(文賦)가 성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는 분량과 성질에 따라서 대부(大賦)와 소부(小賦)로 나누는데, 대부는 사경(寫景)을 주로 하며 소부는 서정(抒情)을 주로 한다고 하였다.

김주한은 양응정의 부 <사(射)>는 공맹(孔孟)과 정주(程朱) 이학(理學)의 입장에서 군자는 자기를 위해 바른 길을 닦아 기르고, <태백묘(泰伯廟)>는 소강체제하에서 왕위 계승은 어떻게 해야 하며, <대장불기재(大匠不棄材)>는 군주의 인재 등용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읊은 것이라 하였다. 비록 소강체제하 이긴 하지만 가학(家學)과 본인의 강직함 등이 잘 나타난 작품이라 하였다. 또 형식을 중시하지 않는 문부의 형식으로 지은 것인데, 성리학적 견해를 녹여 넣은 솜씨는 훌륭하다<sup>5)</sup>고 하였다.

김주한의 연구는 성리학적인 측면에서 다루었고, 그 의미가 충분히 인정된다.

1) 백은영, 「송천 양응정과 그의 시세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2) 권순열, 「송천 양응정의 시문학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3) 『고시가연구』 제6집, 한국고시기문학회, 1999. 참조.

4) 김주한, 「송천 양응정의 부에 대하여」, 『고시가연구』 제6집, 1999.

5) 김주한, 앞의 논문, 26쪽

그러나 문학작품이란 작가정신과 의식의 소산이다. 작가는 필연적으로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주한의 연구는 시대상황 측면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시대상황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양응정의 부에 관한 논문은 한 편에 불과하다. 이는 양응정의 부 작품이 세 편에 불과한 탓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응정이 살았던 시대를 돌이켜 보면, 이 세 편의 부가 갖는 의미가 범상치 않다. 문무를 겸비해야 한다는 <사>, 현군의 출현을 위해 자리를 양보했던 <태백묘>, 인재를 적재적소에 고루 등용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뜻을 가진 <대장불기재>는 당시의 시대적 고민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양응정의 생애와 현실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 세 편의 부가 각각 어떤 내용이며, 당시의 시대상황과 어떻게 부응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2. 양응정의 생애

양응정은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에서 1519년 5월 14일 태어났다. 그 해는 기묘사화가 발생한 해이다. 이때 부친 양팽손은 기묘사화에 휘말려 관직을 삭탈당하고 고향에 돌아온 암울한 시기였다. 그는 조광조와 얽힌 인연으로 27년이나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조광조 시신을 운구한 장남 양응기는 평생 과거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sup>6)</sup> 이러한 상황에서 자라게 된 양응정의 어린 시절은 부친과 형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시기였다. 이러한 유년기의 충격은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 가장 지배적인 심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응정은 이를 극복하고 승화시켜 그가 살았던 시대와 사회에 대해 유학자로 책임을 다했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였다. 이는 그의 시문과 각종 역사적 자료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유년기의 기록이 별로 남은 것이 없지만 그가 5세 때 부친이 중조산 속의 쌍

6) 양동대, 「학포 양팽손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쪽.

봉리에 새 거처를 마련하여 이사를 하였다. 이때 그가 큰 붓으로 벽에다 “문왕의 아들로 무왕이 태어났네”라고 쓰고, 그 곁에다 대구로 부친 휘와 자신의 이름을 써서 “아무의 아들로 아무가 태어났다”라고 썼다. 이를 본 선배 어른들이 자획의 싹싹함과 기량의 훌륭함에 탄복하지 않음이 없었다.<sup>7)</sup> 여기서 보면 양응정은 어려서부터 글씨를 매우 잘 쓴 것으로 보인다. 훗날 그는 초서와 예서에 뛰어나, 백광훈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sup>8)</sup>고 한다.

양응정은 16세 때 1534년 모친상을 당한 슬픔 속에서도 학문을 익혀 1540년 22세 때 생원시에 장원을 한다. 그 후 12년 후인 1552년 34세 때 식년문과에 급제하기까지의 행적은 분명하지 않다. 이 기간 동안 부친상을 당하고 과거에 낙방하기도 하는 등 시련이 있었으나 그의 생애와 문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석천 임억령(石川 林億齡, 1496-1568)과의 만남이 있었다. 양응정이 임억령을 처음 만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들이 1550년 임억령이 거처하던 당성(지금의 해남)에서 만나, 61수나 되는 많은 시를 수창하였다. 양응정은 임억령과 만남이 있는 2년 후 1552년(명종 7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를 하였다.

이후 양응정은 명종과 선조시기에 그의 사명을 다한다. 과거에 급제 후 바로 홍문관 정자, 홍문관부수찬, 예문관봉교와 대교, 홍문관수찬, 전라도사, 순창현감 등을 지냈다. 그는 1556년 문과중시에서 북쪽 여진과 남쪽 왜구에 대한 <남북제승대책>으로 장원을 하여, 이조좌랑으로 승진 하였다. 그 후 수찬, 광주목사, 진주목사, 경주부윤 등을 지내고, 여러 번 제술관·접반관이 되어 중국 사신들과 수창을 하여 시를 짓는 재주를 드러내기도 하였다.<sup>9)</sup>

이러한 외중에서 문정왕후의 수렴정치와 윤원형의 척신정치로 얼룩진 명종이 후사 없이 타계하고, 중종의 서자 덕흥대원군 셋째 아들 선조가 왕위에 올랐다. 특히 선조는 학문을 좋아해 사림들의 기대를 받았다. 이러한 시기에 양응

7) 五歲時，學圃先生，連登兜啓。有意遯世，棄月谷舊舍，築一室於中條山中雙峯里。及成新架，先生以大筆書諸壁曰，“文王之子武王出”，又對書學圃先生諱及先生小字曰，“某之子某出”云。先輩長者，莫不嘆服其字畫之雄勁，器局之穎達。(李滌，〈松川先生行狀〉，『松川集』卷之五)

8) 先生善草隸，一日，謂白光勳曰。君之筆力，亦可畏矣，余竊慕陶靖節歸去來辭，寫出一通。君可賞之否，因出示之。光勳嘆服，請袖來數月致工焉。(〈言行錄〉，『松川集』卷之四)

9) 華使之往來本朝也，先生累爲製述接伴官，唱酬之際，輒動容敬服。朴思菴淳嘗曰，“吾再使遠接，率禮無愆者，賴有公變”(李滌，〈松川先生行狀〉，『松川集』卷之五)

정은 선조 초창기 접반사로서 선조의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명나라에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어 1578년(선조 1년) 이조참의에 임명되어 당상관으로 문신들의 인사에 총체적으로 관여를 하였다. 그는 이 때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고자 하였다.

양응정은 학문에 뛰어나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되었다. 그는 관직 생활 중에 파직을 당하는 등 시련이 있었으나, 비교적 순탄하게 벼슬생활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그의 뛰어난 학문능력과 순탄한 벼슬생활로 많은 문인을 배출하였다. 그 중에서도 송강 정철, 죽천 박광천, 일휴당 최경희, 옥봉 백광훈, 고죽 최경장, 정훈 장군 등은 그의 대표적인 문인이다.

양응정은 어릴 때부터 영민하여 부친 친구들로부터 후일 촉망받는 인물로 인식되었다. 양응정의 학문에 대한 깊이는 선조가 미암 유희춘 등에게 명해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등의 언행을 모아 『유선록』을 편찬할 때에, 그가 함께 참여해 그 일을 완성한 사실<sup>10)</sup>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양응정은 자연과 사물의 이치를 속속들이 깊이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둬으로써, 문장으로 이름 얻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문인들에게 문장으로 스스로 기약하는 것을 경계하였다.<sup>11)</sup> 또 그는 학문의 근본을 정성과 공경에 두고 충성과 신의를 중시했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을 학문의 중요한 점으로 삼아야 한다 하였다.<sup>12)</sup>

양응정은 문인이면서 군략에 조예가 있는 병법과 전술 등에 일가견을 가지고, 국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실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문과 중시에서 장원한 그의 <남북제승대책><sup>13)</sup>에서 첫째 북쪽 여진에 대해 강경보다 회유책을 우선 할 것, 둘째 왜구 대책에 대해 인재 양성과 수비 위주의 전술과

10) 戊辰, 宣廟卽祚, 銳意修文. 命儒臣柳眉巖希春等, 撰次鄭圃隱, 金寒暄, 鄭一蠹, 趙靜菴, 李晦齋諸賢言行之爲後學標準者, 爲儒先錄. 眉巖旣受命, 以先生爲博文強記, 且學圃先生, 以靜菴先生道義之交, 出處又同, 宜有家庭所受, 請與同事. 先生遂與卒業, 多所裁定 (李滉, <松川先生行狀>)

11) 先生嘗謂鄭松江澈曰, 余以文字徒得虛名, 而動輒得謗. 此儒者所恥. 君輩慎無以文章自期焉. (<言行錄>, 門人白光城洪蓮以文才并擅當世, 先生謂二人曰. 君輩能文章乎. 凡讀書者必窮理. 未有不本於窮理而先致文章者也. 余亦晚悟, 悔之何及, 竊爲後學惜之. (<言行錄>, 『松川集』卷之四)

12) 學之成, 在於誠敬. 爲己爲人, 行成名立, 莫非自忠信慎獨上做去. 無自欺三字, 爲爲學之要的也. 每誦朱夫子萬事不求忠孝外之句, 以警之 (<言行錄>, 『松川集』卷之四)

13) <策>, 『松川集』卷之三.

병선을 제작할 것, 셋째 남쪽 호남지방의 왜구 방어에 집중할 것, 넷째, 비변사를 폐지하고 병권을 병조에 전담시킬 것 등의 국방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양응정은 머지않아 남쪽에 외환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언하였다. 이는 정치적 분란과 허술한 변방 경비로 국란이 있을 것을 예상한 것이다. 그가 이러한 선견지명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외직을 맡으면서 얻게 된 국방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그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나라의 위협에 대비해 지식들을 교육시킨 것이다. 부친에게 병법과 진도를 배운 아들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즉시 의병에 가담해 활동을 하였다. 차남 양산룡은 운량장이 되어 군량을 조달하였고, 삼남 양산숙은 진주성 전투에서 33세의 젊은 나이로 목숨을 잃었다.

### 3. 양응정의 부에 대한 약론

한문문학의 하위 장르인 부 문학은 운문 문학과 산문 문학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개별 텍스트의 길이가 작자에 의해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부 문학은 한국한문학의 한 장르로 한시에 비해 그다지 활발한 창작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신라시대부터 해서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생명력을 이어왔다. 긴 시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며 창작이 이루어지고 향유될 수 있었던 것은 부만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에 대하여 『문심조룡·전부(文心雕龍·銓賦)』에서, ‘시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부이다. 부라고 하는 것은 펼쳐 놓는다는 뜻이다. 아롱거리는 채색을 깔고 글로 엮어, 대상물을 형용해 뜻을 문자로 그려내는 것이다. 부는 시로부터 나왔는데 길이 갈리고, 파가 달라졌다. 대상물을 묘사하고 겉모습을 그려내 새기고 그려 울울창창하게 되었다.’<sup>14)</sup>고 규정하고 있다.

14) 詩有六義，其二曰賦。賦者，鋪也，鋪采攤文，體物寫志也。賦自詩出，分岐異派，寫物圖貌，蔚似雕畫。『文心雕龍』，〈銓賦〉。

국문학에서 부 문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부 문학의 범위와 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된 개별 작품이나 작가들에 대한 연구도, 전체 연구 대상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sup>15)</sup> 이는 부에 대한 규정이 아직도 정밀하게 진행되지 못해 어떤 학자는 사와 부를 하나로 보아 사부를 대상으로 논의하였고, 어떤 학자는 사와 부를 별개로 보고 부에 대한 논의를 했기 때문이다.<sup>16)</sup>

우리나라 부 문학사는 연구가 만족할 만큼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치원(崔致遠, 857-?)의 <영효(詠曉)> 이후로 김부식(金富軾, 1075-1151), 이규보(李奎報, 1168-1241), 이색(李穡, 1328-1396), 김종직(金宗直, 1431-1492) 등을 거치면서 부문학 작품은 연연히 이어져 왔다. 양응정은 성리학이 중심이 되는 시기를 살았기에, 문부(文賦)의 작법에 익숙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식적인 면을 별로 중시하지 않고 이치를 설명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sup>17)</sup> 양응정의 문집인 『송천집』에는 <사>, <태백묘>, <대장불기재> 세 편의 부가 있다. <사>는 『예기·사의』, <태백묘>는 『논어·태백』, <대장불기재>는 『맹자·진심장 상』을 참고해 지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양응정이 활동했던 조선 명종과 선조 시대를 바탕으로 부 작품 세 편을 살펴보고자 한다.

### 3.1. 사대부의 덕행 수양 - 사(射)

활쏘기는 고대 중국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법식 중의 하나였다. 『예기』 <사의>에서, “활을 쏘는 것은 인의 길이다.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을 구한다. 몸을 바르게 한 후에야 화살을 쏘며, 맞추지 못했으면 나를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는다. 돌이켜 나 자신에게서 잘못을 구할 따름이다.”<sup>18)</sup>고 하였다. 고대

15) 구봉근, 「17세기 가사와 부 문학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쪽.

16) 구봉근, 위의 논문, 19쪽.

17) 김주환, 「송천 양응정의 부에 대하여」, 『고시가연구』 제6집, 1999, 24쪽.

18) 射者仁之道也。求正諸己。己正而後發，發而不中，則不怨勝者。反求諸己而已矣。『禮記·射義』

중국 육예에서 활쏘기는 인의 도를 수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응정의 부 <사>는 바로 <사의>를 참고해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는 내용에 따라 문장을 아홉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余究夫養正之大方,	내가 연구해 보니 바른 길을 닦아 기르는 좋은 방법은,
功不外乎責己.	그 공은 자신을 질책하는 것 밖에 없다.
玆直內而表端,	이에 마음도 곧도 겹도 단정하면,
德日造而不止.	덕이 나날이 나아져 그치지 않을 것이다.

(2)

美哉射者之爲志,	아름답게도 활 쏘는 자의 뜻은,
實有似乎君子.	사실 군자의 그것과 흡사하다.
豈勝己之或怨,	어찌 자기보다 나은 자를 원망하랴.
惟反求之是事.	오직 반성하고 패배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方決捨之旣依,	작지와 팔찌 단단히 준비하고,
紛衆夫之來同.	못 사나이들이 한데 모였다.
各分耦而揖讓,	각기 짝을 나누어 마주서서 읊을 하며 사양하고,
躋彼堂而雍雍.	활 쏘는 마루에 올라 화목하게 어울린다.
晝周旋之合度,	모든 준비가 법도에 합당하고,
秩威儀之不忒.	규율이 질서 정연하게 된다.
彼侯面之高抗,	과녁이 높이 걸리고,
已正鵠之備設.	과녁 한 가운데 점을 설치한다.
情外注於百步,	마음은 백보 밖을 겨냥하지만,
志內正乎腔裏.	뜻은 몸 속에서 바른다.
身體正而氣堅,	신체가 바르면 기운이 견고해지고,
持審固乎弓矢.	세심하게 활과 화살을 잡기에,
故發之以必中,	반드시 명중한다는 각오로 발사하는 것이다.
奏爾能而無厭.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다한다.

(4)

射旣罷而降階,  
楫不勝而立飲.  
勝固忘乎善藝,  
負亦至乎自責.  
終無怨而且臧,  
禮率度而樂節.  
事皆出於論技,  
用甚要於觀德.  
是所貴乎射儀,  
可善教而善俗.  
肆仲尼之有言,  
必也射乎有爭.

활쏘기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와서는,  
패자에게 읊을 하고 술을 마시게 한다.  
승자도 재주가 뛰어나 이겼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패자도 역시 자신을 책망할 따름이다.  
끝까지 졌다는 것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는다.  
예절은 법도에 맞고 음악은 절주가 맞는다.  
이 일은 모두 기술을 논하지만,  
훌륭한 덕행을 드러내어 보이는데 매우 중요한 쓰임이 된다.  
이것이 활쏘기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잘 가르쳐 풍속을 착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니가 말씀하시기를,  
다투려면 반드시 활쏘기로 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5)

默潛心於遺制,  
想厥初之創成.  
誕神聖之莅民,  
位君師而道率.  
禮勝離而樂勝流,  
  
念振作之要術.  
適弛張而無弊,  
莫此禮之最切,  
遂立典而講修.  
在於樂之辟雍,  
偉百官之駿奔,  
候之設兮虎熊,  
仰天子之色笑,  
又明明而賞罰.

묵묵히 마음 속으로 옛날 사람이 남겨 준 제도를 생각하면서,  
그 제도를 처음 만들 때의 어려움을 상상해 보라.  
신성한 분이 나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임금과 스승의 자리에 앉아 바른 길로 인도하였다.  
예절이 지나치면 민심 떠나고 음악이 지나치면 민심 방탕해  
지니,  
그것을 진작시킬 중요한 방법을 생각하라.  
이완과 긴장을 적절히 조화시켜 폐단을 없애는데,  
이런 예절보다 가장 절실한 것이 없으므로,  
법을 수립하여 연구하고 수양을 하였던 것이다.  
벽옹에서 음악을 배풀고,  
훌륭한 백관이 바빠 움직이며,  
곰과 호랑이를 그려 과녁을 만들고,  
천자의 웃는 얼굴을 우러러보니,  
상과 벌이 또한 분명하다.

(6)

自公卿而大夫,  
 暨鄉黨與邦國,  
 夫孰不德行之旣敦,  
 而於此乎游息.  
 茲俗美而風清,  
 陶一世於禮讓.  
 侯以明之,  
 仰唐虞之蕩蕩,  
 射不主皮,  
 慕殷周之郁郁.

정승과 대부에서,  
 좁은 고을과 넓은 국가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덕행에 힘쓰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모두 거기에 노닐며 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때문에 풍속은 아름답고 맑았으며,  
 세상이 예를 지켜 사양하므로 혼도했도다.  
 과녁을 밝히니,  
 당우의 넓고 아득함을 우러러 보고,  
 활쏘기는 명중하기만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문물이 성행했던 은나라와 주나라 시절을 그리워 해본다.

(7)

逝矣聖人之已非,  
 久盛儀之不復.  
 世逐技而趨邪,  
 人敗禮而喪德.  
 聚孤兒於羽林,  
 試衛士於殿閣.  
 徒尙武而蔑禮,  
 焉彼哉之足責.

성인의 시대는 아득하여 보이지 않고,  
 융성했던 예의는 회복되지 않은지 오래 되었다.  
 세상은 재주만 좇아서 사특한 쪽으로 흘러,  
 사람들은 예를 망치고 덕을 손상시켰다.  
 황제의 근위군에는 고아만을 모으고,  
 궁전에는 위사만을 시험한다.  
 무력만을 숭상하고 예의를 멸시하니,  
 어찌 저 사람만 꾸짖을 것인가?

(8)

往而復者天運.  
 王者作於五百,  
 舉周官之法度,  
 率禮教而匡直.  
 士鼓氣於行藝,  
 咸蹈舞而振作.  
 若有人兮山之中,  
 踵厥武於前賢.

한번 가면 다시 오는 게 하늘의 운행이 아니던가?  
 왕자가 오백년을 주기로 일어나,  
 주관의 법도를 실행하고,  
 예의에 관한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고친다.  
 선비는 육예를 행하는데서 사기가 격려되니,  
 모두가 춤을 추면서 떨치고 일어난다.  
 산 속에 있던 사람도,  
 옛 현인들의 뒤를 따라 나간다.

據於德兮依於仁,	덕에 근거하고 인에 의지하며,
游於藝兮幾年.	몇 년을 예에서 노닐었던가?
立中道而躍如,	중도에 서서 뛰어오르듯,
曾不變其彀率.	일찍이 활의 시위를 잡아당기는 정도를 바꾼 적이 없다.
志常堅於如射,	뜻이 활쏘기 할 때와 같이 항상 견고하니,
心不忘於正鵠.	마음은 과녁의 한가운데 되는 점을 잊지 않는다.

(9)

然君子之有藝,	그러나 군자에게 기예가 있어도,
德將之而後宜.	덕으로 기른 뒤에야 마땅한 것.
及四矢兮揚九天,	네 개의 화살로 구천을 쏘아 올린다 하여도,
彼徒技兮何爲.	그저 한갓 재주일 뿐 무엇에 쓸 것인가?
正乎內而端乎表,	마음을 바루어서 겉모습을 단정히 하고,
期反求而革悲.	돌이켜 구하고 사념을 없애기를 기약한다.
文武吉甫,	문무를 겸한 윤길보는,
萬邦爲憲,	만방의 모범이거니,
庶若人之同歸.	그런 사람과 같게 되길 바란다. <sup>19)</sup>

활쏘기는 옛날 중국의 아동교육 필수과목인,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 등 6종류에 들어 있는 중요한 과목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다투는 것이 없으나, 반드시 활쏘기 경쟁을 한다. 읊하고 사양하며 올라가고 내려와서 마시니, 그 다투는 모습이 군자다운 것이다.”고 하였다.<sup>20)</sup> 활쏘기는 개인 각자의 심신단련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각자가 자신의 개성에 따라 심신단련을 위해 활쏘기를 활용하는 정도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의 이해와 집단의 이해를 내세워 악용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 양웅정은 <사>에서 사람이 타고난 성질은 선하다는 일반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양웅정이 활동한 조선 명종 대에는 왕위계승을 위한 외척간의 갈등으로 인한

19) 『松川集』 卷之二, 부(賦) <사(射)>내용은 필자가 번역하였다.

20) 『논어』 <팔일편>: 子曰 君子無所爭, 必也射乎, 揖讓而升, 下而飲, 其爭也君子.

을사사화, 1555년에 왜구가 배 70여 척을 끌고 전라도 남쪽 지방에 침입한 을묘 왜변 등 역사적으로 커다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국정은 혼탁해 지고, 사대부들은 권력의 암투와 이권에 눈이 멀고, 선비들은 불굴의 선비정신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혼란기에 양응정은 중시에서 내수외양책에 의한 <남북제승대책>을 제시해 국가 안정을 도모하였고, 사대부와 선비들의 정신을 진작시킬 중요한 방법으로 활쏘기를 권장하였다. 때문에 양응정의 <사>와 <남북제승대책>은 문무겸전에 대한 현실인식의 반영이라고 할 것이다.

### 3.2. 왕위 계승의 정당성 - 태백묘(泰伯廟)

<태백묘>는 역사적 사실을 참고해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적장자 태백 대신에 막내 동생 계력에게 왕위를 넘기려는 부친의 뜻을 알아채고, 동생 중옹과 함께 형만 지방으로 떠나 막내 동생이 왕위를 계승한 내용이다. 부친의 뜻과 재덕을 감안해 막내에게 왕위를 넘긴 것은 당시의 법으로 볼 때, 적장자가 왕통을 계승하지 않고 달아난 것은 불효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쓴 글이다. <태백묘>의 내용을 일곱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事有至難而善處,	지극히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은,
非至德其焉能.	지극한 덕이 없으면 어찌 가능하겠는가?
當行跡之未著,	행적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人不得以見稱.	사람들이 칭송할 수 없는 것이다.
過古廟而景仰,	옛날 사당을 지나면서 덕을 사모해 우러러 보고 싶은 마음이,
如夫子者蓋寡.	선생에게처럼 생기는 것은 대개 드문 일이다.

(2)

觀商周之交際,	상나라와 주나라 교체시기를 보건데,
固不難於天下.	천하를 차지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何遠邈而不取,	그런데 왜 멀리 달아나 천자의 자리를 취하지 않고,

讓至三而爲果  
 遂父志兮大業,  
 雖斷髮兮亦可.  
 謂立長之大義,  
 乃天地之不易.  
 若以兄而當存,  
 弟雖賢而奚立.  
 況父志兮在彼,  
 余焉能而冒處.

세 번이나 사양하여 뜻을 관철했는가?  
 아버지 뜻을 따라 대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면,  
 단발인들 못하겠는가?  
 장자를 왕위에 앉히는 큰 의의는,  
 바꿀 수 없는 천지 의리라네.  
 만약 형으로서 당연히 서야 한다면,  
 아우가 비록 현명하다고 해도 어찌 즉위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아버지 생각이 아우에게 있으니,  
 내 어찌 그 자리를 차지하겠는가?

(3)

托採薇而長往,  
 成王季之繼序.  
 及至孫之傳位,  
 奄基命之宥密.  
 聖繼聖而相承,  
 宜無憂於繼述.  
 日國勢之強大,  
 三天下而有二.  
 赫弘業之綿綿,  
 蔚澧水之有芑.  
 是知八百之周社,  
 實由夫子之所逃.

고사리 캔다 하여 멀리 떠나,  
 왕계가 계승하도록 했구나!  
 제왕의 손자가 왕위를 계승하고,  
 하늘의 명령으로 왕업 터전을 너그럽고 조용하게 다졌네.  
 성인과 성인이 서로 이으니,  
 계술함에 근심이 없어졌네.  
 국세가 나날이 강대해져,  
 천하의 삼분의 이를 차지했다.  
 빛나는 흥업은 끊임없이 이어져,  
 무성하게 우거진 풍수에 기가 되었네.  
 이에 알겠구나 주나라 사직 팔백년 역사는,  
 실로 선생이 도망해 준 결과이네.

(4)

心得安於處仁,  
 無一分之私毫.  
 截君臣而不犯,  
 忠已盡於一身.  
 處父子兮能安,  
 孝無加於悅親.

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니 마음이 편안하여,  
 한 치의 사사로운 마음도 없구나.  
 임금과 신하의 한계를 분명히 밝혀 침범하지 않고,  
 이 한 몸 충성을 이미 다 바쳤도다.  
 부모와 자식 간의 처지를 편안하도록 했거니,  
 효도란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네.

誰知文身之中,  
炳忠孝於日月.

누가 알았으리오 몸의 문신 속에,  
충효의 마음이 해와 달처럼 빛나고 있었네.

(5)

方夷齊之叩馬,  
事誠異於心一.  
諫不合則當去,  
彼所以顯其形跡.  
至三讓而不露,  
非達權則難及.

백이와 숙제의 고마간은,  
일은 다르나 마음은 같네.  
간언하다 안 맞으면 떠나야 하는 법,  
그래서 그들은 형적을 남겼네.  
세 번이나 사양하고도 형적을 노출하지 않았으니,  
권도에 통달하지 않았던들 어려웠을 것이네.

(6)

思夫人其已遠,  
覽後世而重傷.  
拂於情而逆於事,  
多生亂而謀賊.  
紛箕裘而割恩,  
爭尺寸而不悌.  
擯于邦而必克,  
有鄭莊之兄弟.  
先據國而不納,  
有衛輒之父子.  
哀大倫之已斃,  
況恩義之足視.  
較若人之所爲,  
無等級而寄言.  
至今宇宙之益儼,  
庶頑廉而薄敦.  
奠椒漿於落日,  
冀永享於明魂.

그 분 가신지 이미 오래 되었음을 생각하고,  
후세를 보니 거듭거듭 슬퍼지네.  
성정에 어긋나고 사리에도 거슬러,  
역적 모의로 난리를 일으키네.  
기구를 나누는데 분란스러워 은혜를 값아 먹고,  
한 푼 두 푼 다투다니 공경스럽지 못하네.  
나라 뺏기에 혈안이 되었던 예로,  
정나라의 장공 형제가 있었다네.  
먼저 나라를 차지한 채 상대를 용납하지 않은,  
위나라 첩의 부자도 있었구나.  
인륜의 대도가 무너진 게 서러운데,  
하물며 인정과 도리 따위를 따질 것인가?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을 선생과 견주려니,  
등급을 매겨 말을 전할 수가 없네.  
지금도 천지 우주는 엄연하니,  
완악한 사람 겸손하게 만들고 박정한 사람 돈독하게 하겠네.  
지는 해를 보며 초장을 올리니,  
영혼께서 영원한 생을 누리시기 바라네.

(7)

噫順父而已,	아 아버지의 뜻을 따를 뿐,
天下敝屣.	천하 따위야 현 신짝이었네.
傳賢而已,	어진 이에게 자리를 전할 따름이니,
長幼何議.	어른과 어린이를 왜 따질 것인가?
邈爾荊蠻,	멀고 먼 형만 땅이야,
惟爾之所.	바로 당신의 땅이어라.
翼翼廟貌,	날아 갈 듯 든든한 사당이야,
惟德之符.	그대 덕과 부합하네. <sup>21)</sup>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태백은 지극한 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 번 천하를 양보하였으나, 백성들이 그것을 칭송할 수 없었다.”<sup>22)</sup> 덕이 있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자기가 책임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 태백은 왕자 중 장남이었지만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을 책임자가 아님을 알고는 책임자인 동생 계력에게 양보하고 떠났다. 덕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남에게 생색을 내지 않는다. 무심히 좋은 일을 할 뿐, 자기도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좋은 일을 한 줄도 모른다. 태백이 그런 사람이었다. 태백이 동생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고, 알 수가 없었으므로 칭송할 수가 없었다.

조선 시대 500여 년간 추대된 왕은 모두 27명이었다. 이들 중에 왕의 적장자 등으로 정통성에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세자나 세손에 책봉되어 왕위를 계승했던 사람은 겨우 1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7명은 세자의 책봉 과정이나 왕위 계승에 있어 원칙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계승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 선조는 왕자가 아닌 먼 왕족으로서 대통을 이은 경우이다. 왕위 계승에는 능력이나 도덕성 역시 중요한 계승 조건이었다. 선조는 조선 왕조에서 왕의 적자, 적손이 아닌 사람으로 왕실의 방계에서 처음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다. 그는 중종의 서자였던 덕흥군의 셋째 아들로 명종이 서거한 후 대통을 계승하였다.

21) 『松川集』 卷之二, 부(賦)<태백묘(秦伯廟)>내용은, 필자가 직접 번역하였다.

22) 『논어』, <태백편>: 子曰 秦伯其可謂至德也已矣. 三以天下讓, 民無得而稱焉.

명종은 여러 왕손을 시험해 보고, 마음속으로 하성군(후일 선조)에게 왕위를 전해 줄 뜻을 정했다. 세자라는 정식 명칭이 붙여지지 않았을 뿐, 그는 하성군에 대한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하성군을 자주 불러서 학문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훌륭한 선생을 선택해 가르치게 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다.

<태백묘>는 선조가 왕위에 오른 뒤 현군임을 부각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양응정이 보기에 선조는 종종 의 서자였던 덕흥군의 셋째 아들로, 명종이 서거한 후 대통을 계승하였기 왕족간의 갈등을 예상하고, 계승문제를 합리화하고 있는 현실인식의 반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태백묘>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더욱 대내외적으로 현군임을 호소하는 의미를 갖는다.

### 3.3. 적재적소의 인재등용 - 대장불기재(大匠不棄材)

<대장불기재>는 『맹자』 <진심장 상><sup>23)</sup>에서 ‘훌륭한 목수는 서툰 목수를 위해 먹줄과 먹을 고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부분을 참고해 지은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임금이 인재를 발굴해 쓰려고 할 때는 인재의 재덕을 잘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골고루 써야 한다는 것이다. <대장불기재>는 내용에 따라 문장을 여덟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伊體生而用隨,	물체가 생기면 사용이 따라 나오니,
理昭著於萬物.	이치가 모든 물건에 밝게 드러난다.
豈取重而舍輕,	어찌 중요한 것이라 취하고,
寧大收而小斥.	가벼운 것이라 배척하겠는가?

(2)

眷天之生木,	천삼이 나무를 심으니,
服匠氏之稱施.	장인이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際夏屋之將營,	큰 집을 지으려고 할 때,

23) 『맹자』, <진심장 상>: 大匠不爲拙工, 改廢繩墨.

肇創基之建規.  
 遂伐山而鳩材,  
 無遠邇而并致.  
 紛楠杞之交積,  
 抑松梓之錯置.  
 類不齊於脩短,  
 形各異於曲直.  
 爰丈引之是秉,  
 繼準繩而忖度.  
 並度斷而審處,  
 誰或棄夫尺寸.

터를 닦고 규모를 세워야 한다.  
 두루 산의 나무를 베어 재목으로 모을 때,  
 먼 곳 가까운 곳 없이 모두 이르게 한다.  
 녹나무와 소태나무를 어지러이 쌓고,  
 또한 소나무와 가래나무도 눌러 섞어 놓는다.  
 종류로는 길고 짧은 것이 가지런하지 않고,  
 모양도 각기 달라 굽거나 곧은 것이라네.  
 여기에 길고 짧은 자를 쥐고,  
 먹줄에 대패를 들고 치수를 잴다네.  
 모두 조심스레 깎고 살피어 처리하니,  
 누가 감히 한 치, 한 자짜리인들 버리겠는가?

## (3)

入穹隆於棟樑,  
 備細瑣於拱桶.  
 厥欄榱與桁欂,  
 咸位陳而須設.  
 既經爲之合制,  
 亦何有於作室.  
 攀金革於彙飛,  
 韋成功於不日.  
 絕鳥鼠之來害,  
 孰見窳於風雨.  
 是永建乎乃家,  
 亮君子之攸宇.  
 喟斯匠之度宇,  
 稟智術之超絕.  
 彼凡工之偏見,  
 昧適用之大法.  
 擯連抱於尺朽,  
 又斷大而爲小.

휘어진 것은 대들보와 노리감에다가,  
 자질구레한 것은 두공과 나무통감에 쓰네.  
 난간과 서까래에 두공도 있어야,  
 위치를 잡아 설치한다네.  
 이제 제도상 합당한 조치를 취하니,  
 집 짓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땀이 나는 듯한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집이,  
 며칠 안되어 완성 되었네.  
 새나 쥐들도 해치지 못 할 것이니,  
 비바람엔들 끄떡이나 하겠는가?  
 이제 영원히 내가 살 집을 지었으니,  
 밝은 군자가 거처할 집이네.  
 아! 이 장인의 법도와 기량을 보면,  
 타고난 성품과 지혜와 기술이 출중하게 뛰어난 까닭이라.  
 저 보통 장인의 편견은,  
 알맞게 쓸 수 있는 큰 방도에 어둡구나.  
 아름답드리 큰 나무에 한 자가 썩었다 버리고,  
 또 큰 목재를 깎아 작게 만드는구나.

懿若人之不爾,  
盡物情於萬殊.  
曰余嘉乃宏模,  
默潛究而永喟.  
在彼技猶必然,  
矧人上之用才.

아! 이 사람이 이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천차만별의 물건 형편을 모두 헤아릴 수 있으리.  
내가 이 굉장한 규모에 감탄하여,  
묵묵히 연구한 끝에 길게 한숨을 쉰다.  
저 기술도 가히 필연이지만,  
하물며 임금이 인재를 쓰는 일일까보냐?

(4)

肆明王之旁招,  
冀天工之共恢.  
蕩多士之并臻,  
實國家之楨幹.  
然人品之相間,  
豈同條而共貫.  
器固分於巨細,  
德亦判於仁悍.  
茲兩端之允執,  
各因人而命職.  
智者達而愚者直,  
取通敏與木訥.  
弱則惠而強則勇,  
內慈順與果決.  
羌度義而度力,  
肯求備而屑屑.  
上公服與六卿,  
下庶司與百司,  
舉稱位而不紊,  
靡片善之或遺.  
偉任人之若茲,  
宜光澤乎六合.  
無一民之侮子,

현명한 임금이 널리 인재를 부르는 것은,  
천공과 함께 다스리기 위함이다.  
여기에 많은 선비들이 함께 모였으니,  
참으로 국가의 정간이다.  
그러나 인품이 각각 다르니,  
어찌 같은 끈으로 모두를 꿰겠는가?  
그릇도 당연히 크고 작은 구분이 있듯이,  
덕 또한 어질고 사나움의 구별이 있는 것이네.  
이에 임금은 이 양단을 적절하게 잡고서,  
각기 사람에 따라 직책을 명하네.  
지혜로운 자는 통달하고 어리석은 자는 정직하니,  
사물에 통달하여 민첩함과 순박하고 말 재주가 없음을 취하네.  
약자의 은혜와 강자의 용기를 취하여,  
자비스런 유순함과 과단성있게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네.  
의리와 능력을 헤아리어,  
기꺼이 구비하여 세세하게 모든 곳을 갖추네.  
위로 공복과 육경에,  
아래로 서사와 백사까지,  
모두 직위에 맞고 어지럽지 않으며,  
좋은 점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않는다.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게 이와 같으니,  
온 세상에 빛이 덮이리라.  
한 사람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으니,

囿四海於我闡。	세상이 나와 한 집안이 될 것이다.
信用才與用人，	정말로 재목 쓰고 사람 쓰는 것，
事懸殊而理該。	일은 비록 달라도 이치는 한 가지네.
溯往古之列辟，	옛날로 거슬러 올라 여러 임금，
得此道者幾哉。	이 방법을 터득하여 실시한 자 몇이나 되었던가?

(5)

唐建官之惟百，	당나라 관료체제는 백이나 되지만，
不聞皆稷契之儔類。	모두 직과 설과 같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네.
周之臣三千，	주나라 신하가 삼천이었지만，
夫孰有周召之與比。	누가 주공 소공과 견줄 수 있었던가?
期翁受而敷施，	인재를 골고루 받아 들여 인정을 널리 베풀면，
致斯室之大竟，	그 왕실이 끝없이 커지련만，
何叔季之庸君，	어찌해 말세의 용렬한 군주는，
但責人以至聖。	남들한테만 성인이 되라고 채근하누나.
昨所進今不知亡，	어제 천거했던 사람도 오늘 없어진 사실을 모르고，
日播棄乎黎老。	나날이 늙은이를 버리기만 하네.
曠厥官而莫察，	벼슬자리를 비워 놓고도 살피지 않으니，
國制隨而顛倒。	나라가 따라서 쓰러지는구나.
卒明堂之棟樑，	명당의栋梁을，
任扶持者伊誰。	부지할 사람 과연 그 누구란 말인가?
諒工師之罪人，	공사의 죄인들인데，
吾於彼而何疵。	내 그들에게 무엇을 탓하리?

(6)

慨已往之已久，	지난 시절 오래도록 그리 되었던 것 개탄스러울 일이나，
偉我王之太東。	대동의 위대하신 우리 임금님을 생각한다.
布羣才於百僚，	많은 인재를 각종 관리의 자리에 앉혀，
奠國家於熙雍。	밝고 평화스런 나라를 만드셨네.
然臣忠之區區，	그러나 보잘 것 없는 저의 충성심으로，
願一獻夫芹曝。	작은 정성을 드리기 원하네.

覽大匠之所當，	큰 장인이 해야 할 일을 보면，
誠不外於繩墨。	참으로 먹줄통과 먹줄에 벗어나지 않네.
以爲方而爲圓，	모나게 자르고 둥글게 만드는데，
措甚約而施博。	너무나 간단하게 엄청난 일을 이루네.
況人主之一心，	하물며 임금의 마음 하나가，
乃自然之權度。	바로 자연의 좇아야 할 규칙이나 법도이네.
當日事乎誠正，	마땅히 나날이 성정하게 일하여，
務勩己以反顧。	자기를 바로잡고 자신을 되돌아 보네.
則用人之各當，	이렇게 해서 마땅한 자리에 옳은 사람을 쓰니，
焉有一藝之或失。	한 가지 재주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어찌 버리겠는가?
無棄材兮無棄人，	재목을 버리지 말고 인재도 버리지 말아야 하니，
縱精粗之異事。	비록 정밀한 것과 거친 것은 별다른 일이네.
用爲匠兮用爲人，	장인에게 쓰임이 되고 임금에게 쓰임이 되는，
理何殊於彼此。	이치야 어찌 피차 다름이 있겠는가?

(7)

歌曰。	이어 노래 부른다.
山有木，工則取之。	산에 나무가 있기에, 장인이 베어 간다네.
罔或棄，厥工是就。	혹시라도 버리는 것이 없어야, 일이 잘 되리.
材在彼，用在我。	재목은 저기에 있으나, 그것을 쓰는 사람은 바로 나라네.
嗟是匠兮吾何間然也。	아 장인이여 나에게 무슨 결점이 있어 비난을 할 것인가? <sup>24)</sup>

양응정은 <대장불기재>에서 성리학적 범주를 사용하고 있다. 첫 부분에서 ‘물체가 생기면 사용이 따라 나오니, 이치가 모든 물건에 밝게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즉 양응정은 조선시대 선비 사상인 성리학은 군자의 통치와 백성의 생산이라는 주례에 합당한 사회적 분업을 하늘이 부여한 자연 질서로 파악했고, 혼란한 사회 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법치보다 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림을 강조하고, 왕도정치를 주장함으로써 군주권을 견제하고 선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사민체제 즉 사농

24) 『松川集』 卷之二, 부(賦)

공상 신분 사회를 구상하여 안정된 사회 체제의 확립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은 문정왕후의 수렴청정과 윤원형 일파의 전횡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명종은 선정을 펴고자 했던 포부를 펼치지 못하고 나이 서른네 살, 재위 2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뒤이어 선조가 등극하였다. 선조는 재위 초기에 조선 전기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신원하여 주었고, 반대로 선비들에게 해를 입힌 훈구세력들에게는 벌을 내려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러한 정책은 사람들에게 중앙정계 진출이라는 명분을 확보해 주어 새로운 인물들이 등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인재 등용에 과거 성적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행이 뛰어난 사람을 중용하려고 애썼다. 따라서 이황, 이이 등 많은 인재들이 등용되어 국정을 쇄신하였고 유학의 장려에 필요한 『유선록』, 『근사록』, 『심경』, 『삼강행실』 등의 책들도 편찬되었다. 이와 같이 선조는 재임 초기에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등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

<대장불기재>는 임금이 인재를 발굴하여 쓸 때는 인재의 재덕을 잘 파악해 적재적소에 골고루 써야 한다는 것이다. 양응정은 중국의 부정적인 것들을 예를 들어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임금은 많은 인재를 관료의 자리에 앉혀 국가를 밝고 평화로운 자리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사실 선조는 재임 초기에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등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 양응정은 선조 2년 당시에 이조참의로 있었기 때문에 인재등용에 대한 자신의 포부를 표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맺음말

양응정은 조선 중기에 활동한 관료이자 문인으로, 호남지방에서 활발한 문학 활동을 전개한 중심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1552년 신년문과에서 을과로 급제를 하였고, 1556년 중시문과에서 내수외양책에 의한 <남북제승대책>으로 장원을 하였다. 또한 대사성을 두 번이나 지냈고, 문장에도 능해 목릉성세 시기에 활동했던 시인이다.

양응정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16세기 중엽 명종과 선조 때이다. 이 시기를 예비하고 주도했던 인물들은 주로 호남 출신이거나, 호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문인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목릉성세 터전의 기초를 닦았던 인물들도 있고, 그 시대의 주동적 처지가 되어 이끌었던 인물들도 있다. 양응정의 경우는 화순 능주 출신으로, 목릉성세 터전의 기초를 닦았던 인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응정은 세 편의 부 작품을 남겼다. <사>, <태백묘>, <대장불기재>가 그것이다. <사>는 『예기』 <사의>를 참고해 지은 것이고, <태백묘>는 『논어』 <태백>을, <대장불기재>는 『맹자』 <진심장 상>을 참고해 지은 것이다.

<사>에서는 시대적 혼란기에 사대부와 선비들의 정신을 진작시킬 중요한 방법으로 활쏘기를 권장하여 그들이 문무를 겸한 만방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태백묘>에서는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한 조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인용해 선조의 왕위 계승 문제를 합리화하고 있다. <대장불기재>에서는 임금이 인재를 발굴해 쓰려고 할 때는 혹시라도 인재를 버리는 일이 없이 잘 파악해 적재적소에 골고루 써야 한다는 것이다.

양응정이 남긴 부는 세 편에 불과하지만 신라 최치원의 <영효> 이후로,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내려오는 한국한문화사에서 부 문학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얼마간의 도움이 되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송천집』

『논어』

『맹자』

『고시가연구』 제6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9.

김진영, 『이규보 문학연구』, 집문당, 1988.

구봉곤, 「17세기 가사와 부 문학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권순열, 「송천 양응정의 시문학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김주한, 「송천 양응정의 부에 대하여」, 『고시가연구』 6집, 1999, 97-122쪽.

백은영, 「송천 양응정과 그의 시세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양동대, 「학포 양팽손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조원래, 「16세기초 호남사림의 형성과 사림정신」, 『금호문화』 50, 1989.

조선왕조실록([www.silok.history.go.kr](http://www.silok.history.go.kr)).

| Abstract |

## A Study on the Life of Songcheon Yang Eung-jeong and His Poetic Essays

Yang, Seung-cheon

Yang Eung-jeong, who was a bureaucrat and literary artist from the mid-Joseon era, was one of key literati active in the Honam region. He passed the government examination of the civil official division-B class in 1552. In 1556, he passed another higher level examination as the top winner by writing about 'South-North Winning Measures' under the theme of "the policy of governing internally well and boosting power externally." In addition, he served as the Head of Confucian Education Department twice, and was excellent in writing essays, becoming one of the poets which dominated the so called prosperous period.

It was the times of King Myeongjong and King Seonjo in the mid-16th century that Yang Eung-jeong was mainly active. That era, which was called the prosperous period, bloomed the activities of writing poems and essays. Figures, who helped create that era, were mainly those literati from the Honam region or closely related with Honam. Among them were the founders of the prosperous period, and opinion leaders of that time. Yang Eung-jeong is seen as one of the founders of the prosperous period.

Yang Eung-jeong left three poetic essays, which are <Archery>, <Shrine of Taebaek>, and <A great master craftsman does not abandon wood>. <Archery> was written based on the Meaning of Archery of 『The Book of Rites』; <Shrine of Taebaek> was based on Taebaek of 『The Analects』; and <A great master craftsman does not abandon wood> was based on Daejang of 『Mencius』. The writers should be influenced by their times since their literary works are the outputs of their spirits and understanding. The three works, which were set in the times of King Myeongjong and King Seonjo in the 16th century, is filled with the patriotism of Yang Eung-jeong.

<Archery> recommends the archery for noblemen and scholars as a way of promoting their spirit in confusing times, and wishes that they were models every inch equipped with literary ability and martial arts. <Shrine of Taebaek>, quoting the historical facts, rationalizes the enthroning of King Seonjo to prevent the confusion of the government due to the issue of succession to the throne. <A great master craftsman does not abandon wood> suggests to kings that they should

put the right man in the right place not to disregard talents.

Yang Eung-jeong did not leave many poetic essays. However, his works, after the essay <Yeongho> of the greatest essayist Choe Chi-won from Silla, is regarded as an important part of the poetic essay genre of Korea which was handed down to Goryeo and Joseon from the previous times.

**Key words** : Yang Eung-jeong, poetic essay, <Archery>, <Shrine of Taebaek>, <A great master craftsman does not abandon wood>, patriotism